

근세 한·일 문학작품에 나타난 기녀복식의 조형적 표현 고찰*

- 『춘향전』과 『호색일대남』을 중심으로 -

조선희**
gounder@lycos.co.kr

박옥련***
ylpark@ks.ac.kr

<目次>

- | | |
|---------------|-------------------------|
| 1. 서론 | 3. 문학에 나타난 기녀복식의 조형적 표현 |
| 2. 이론적 배경 | 3.1 형태 |
| 2.1 사회적 상황 | 3.2 색채 |
| 2.2 근세 문학의 특성 | 3.3 문양 및 소재 |
| 2.3 기녀 복식의 美 | 4. 결론 |

主題語: 근세(Modern ages), 문학(Literature), 기녀(Ginyeo), 복식(Costume), 조형성(Formativeness)

1. 서론

한국과 일본은 지리적으로 가까이 있다는 점 외에도 역사적으로 활발한 교류를 통해 정치·경제·문화적으로 상호간에 영향을 끼쳐왔다. 특히 조선후기와 에도시대는 상업 자본주의가 발달하여 서민계층의 경제적 성장을 바탕으로 하는 계급적 신분 이동이 나타났다. 또한 서민계층의 주체적 의식 성장과 유흥문화의 발전은 서민문화의 발달을 일으켰다. 양국은 이러한 비슷한 사회배경과 함께 독특한 서민문학이 나타났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조선후기에는 신분제의 붕괴와 사치풍조, 유흥문화 확산 등의 사회현상에 대한 진단과 대책을 간구(懇求)하기 위한 현실 개혁적 실학사상이 형성되었다.

이러한 실학사상은 곧 문학에도 반영되었다. 특히 서민계층은 사실적이고 풍자적인 산문문

* 본 연구는 2013년도 경성대학교 학술연구지원비에 의해 연구되었음.

** 경성대학교 의상학과 박사과정

*** 경성대학교 의상학과 교수, 교신저자

학을 발달시켰는데 천민계층인 기녀에게 망신을 당하는 상류계층의 모습이나 기녀를 향한 호색적인 상류계층을 조롱하는 내용의 문학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¹⁾

에도시대에는 상품경제가 성행하게 된 결과 새로운 상인문화의 발전이 나타났다. 이와 함께 새로운 유리문화(遊里文化)를 이룩하였으며 서민이나 초민(町人)이 창작하여 향유하는 문학이 나타났다. 이 중 우키요조시(浮世草子)²⁾, 하이쿠(俳句)³⁾, 가부키(歌舞伎)⁴⁾ 등 서민들이 향유하는 오락적인 문예가 독특한 발전을 보였다.

조선후기 문학 중 특히 『춘향전(春香傳)』은 판소리계 특유의 개방성과 적층성(積層性)을 바탕으로 여러 이름으로 재창작되어 다수의 『춘향전』이본(異本)들이 존재한다.⁵⁾ 『춘향전』은 판소리계 소설 특유의 장면 묘사가 뛰어나다. 기녀 춘향과 그 외 기녀들의 묘사에서 드러나는 당시 기녀복식의 조형적 표현은 여느 소설 보다 뛰어나다고 할 수 있다.

에도시대 우키요조시 소설 중 『호색일대남(好色一代男)』은 상대의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호색을 즐기는 한 남성의 일대기다. 당시의 유곽문화뿐 아니라 기녀의 복식과 자태에 대한 묘사 및 삽화가 첨부되어 있어 에도시대 기녀복식의 조형적 표현을 연구하기에 좋은 자료가 되었다.

이러한 자료를 통해 본 연구는 조선후기와 에도시대의 문학에 나타난 기녀복식의 조형적 표현에 대해 비교 고찰하여 양국의 사회배경과 복식에 나타난 조형적 표현에 어떠한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는지 비교해 보고자 한다.

그 동안 선행연구로는 『호색일대남』에 나타나는 여성상 비교에 관한 연구⁶⁾로 채민정(2013), 이유진(2007), 문순미(2007), 정미혜(2003)가 있고 『춘향전』에 나타난 여성상 연구⁷⁾로 유혜경

1) 배비장전, 이춘풍전, 오유란전, 숙향전, 춘향전 등의 소설이 있다.

2) 서민의 향락생활이나 경제생활을 다룬 호색물(好色物)과 서민적인 것이 주류를 이루나, 이 밖에도 무사(武士)의 무용담·진담(珍談)·괴담을 중심으로 한 잡화(雜話), 고전 연극을 변안한 것 등이 있다. 출처: 두산백과

3) 하이쿠는 5:7:5로 된 단형시, 일본고유의 음문문학이다. 일본에서는 예로부터 5:7:5의 리듬감을 중요시해 왔으며, 일본어의 운을 다는 데는 이 5:7:5가 가장 표현하기 쉽다.

4) 가부키는 ‘노래하고 춤추는 예기(藝妓)’라는 뜻에서 가무기(歌舞伎), 또는 ‘기악(伎樂)·기예(伎藝)’를 뜻하는 기(伎) 자를 써 가무기(歌舞伎)라고 표기하였으며, 메이지 시대에는 가무기(歌舞伎)로 표기가 통일되었다. 출처: 두산백과

5) 설성경 역주(1995)『한국고전문학 전집 12 춘향전』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pp.8-9

6) 채민정(2013)「호색일대남(好色一代男)에 나타난 여성상 고찰: 동시대 조선조 소설구운몽(九雲夢)과의 비교를 통해서」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유진(2007)「호색일대남(好色一代男)에 나타난 여성상 연구」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문순미(2007)「호색일대남(好色一代男)에 나타난 삽화에 대한 고찰」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미혜(2003)「호색일대남에 나타난 유녀 고찰」한일어문논집 Vol.7

7) 유혜경(2002)「춘향전에 수록된 춘향의 외양묘사를 통해 본 조선 후기 이상적 여인상 연구: 만화본, 경판본, 남원고사, 완판본의 비교를 중심으로」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양수옥(2012)「춘향전과 서상기의 여주인공 인물 형상화 양상 연구」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맹설(2013)「춘향전과 서상기의 인물 비교 연구」가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양수옥(2012), 맹설(2013), 최재우(2011) 등이 있다. 그러나 조선후기 『춘향전』과 에도 시대 『호색일대남』에서 나타난 기녀복식의 조형적 표현에 대해 비교 분석한 논문은 그다지 많지 않다.

본 논문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근세 한·일 문학에 나타난 기녀복식의 조형적 표현에 대해 형태, 색채, 소재 및 문양을 비교하여 유사점과 차이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는 양국의 문학에 나타난 기녀복식의 조형적 표현을 비교함으로써 양국의 공통적인 복식문화를 찾아본다는 점에서 연구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연구방법으로 조선시대 『춘향전』 중 세밀한 기녀복식의 묘사가 돋보이는 『완판 열녀춘향수절가(完板 烈女春香守節歌)』를 중심으로 『경판 30장본 춘향전』(京板 春香傳)⁸⁾을 참고하여 기녀복식의 조형적 표현을 살펴보았다. 또한 소설에 표현된 기녀복식의 이해를 돕고자 기녀 모습을 다룬 풍속화를 참고하였다. 에도시대는 유곽의 생활과 기녀복식 묘사, 자태에 대한 묘사가 뛰어난 『호색일대남』을 택해 에도시대 기녀복식의 조형적 특성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또한 소설에 표현된 기녀복식의 이해를 돕고자 소설 속 삽화와 기녀 모습을 다룬 미인화를 참고하였다.

2. 이론적 배경

2.1. 사회적 상황

2.1.1 조선시대

조선후기는 임진왜란(1592~1598)과 병자호란(1636~1637) 이후로 사회 전역에 변화가 가속화된 시기다. 실학사상을 바탕으로 문학, 회화, 음악 등 학술의 각 분야에 걸쳐 새로운 경향이 나타난다. 또한 농업기술과 산업발달로 국가 전반의 경제력이 상승한다. 이로 인해 부의 편중현상이 나타났으며 부농의 등장과 몰락하는 양반이 생겨나면서 신분계급의 붕괴를 초래했다. 변화의 조짐은 기녀사회에도 나타났다. 기녀들은 합법적으로 면천(免賤)이 되거나 지방 관리와 결합하여 대비정속(代婢定屬)하였다고 한다.⁹⁾ 반면 기적에 오르는 자의 범위가

최재우(2011)「보조인물의 성격으로 본 ‘춘향전’ 이본 간의 특성 차이 : <남원고사>와 84장본 <열녀춘향수절가>를 중심으로」『열상고전연구』Vol.33

8) 경판은 판소리계 소설인 완판본과는 달리 줄거리 중심의 산문계 소설이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문장체 소설의 특징이 나타난다. 출처: 이석래(2009)『춘향전』

더욱 넓어져 반가여성 중에서도 기녀가 되는 경우도 있었으리라 짐작된다.¹⁰⁾

이와 같이 신분제의 붕괴와 유흥문화 확산 등의 사회현상에 대한 진단과 대책을 간구하기 위해 현실 개혁적 실학사상이 형성되었다.¹¹⁾

이러한 실학사상은 곧 문학에도 반영되었다. 봉건적 사회체제가 해체되면서 억압되었던 인간의 주체적 인식이 부각되기 시작했다. 의식의 성장을 이루게 된 서민계층은 사실적이고 풍자적인 산문문학을 발달시키게 되었다. 즉 조선후기 문학은 서민계층의 생활상과 당시 사회의 구조적 모순이나 상류계층의 비리와 부조리를 풍자하고 비판하는 서민 지향적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기녀에게 망신을 당하는 상류계층의 모습이나 기녀를 향한 호색적인 상류계층을 조롱하는 내용의 문학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천민이면서 상류계층의 남성을 접대하는 기녀의 신분적 특성과 당시 약자인 여성들의 주체적인 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생각된다.

2.1.2 에도시대

에도시대는 도쿠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가 게이쵸(慶長)8년(1603) 에도(江戸)에 막부(幕府)를 개설하여 15대 쇼군(將軍) 요시노부(慶喜)가 정권을 조정에 반환한 게이오(慶應)4년(1868)까지의 봉건시대로 큰 전란이 없었던 태평한 시대였다.

에도시대는 사농공상(士農工商)의 계급으로 구성된 신분제사회였다. 그러나 점차 화폐경제와 도시의 발달로 인해 조난(町人)의 상업 활동이 왕성해지고, 막부체제의 모순이 심각해져 정국과 국론의 혼란이 가중되었다. 이로 인해 경제적인 능력을 가진 조난이 나타남으로써 새로운 상인문화의 발전을 가져오게 되었다.¹²⁾

경제적 번영과 태평성대의 사회분위기로 인해 당시 서민들은 향락적이며 찰나적인 유희문화를 조성시킬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에도사회에는 보수적인 전통문화와는 다른 쾌락적인 ‘서민문화’가 발생하였다.

유희문화의 중요한 무대인 유곽은 현실과는 달리 권력과 계급이 아닌 경제력으로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차별화된 공간이었다. 기녀는 유곽이라는 틀 안에서 기업(妓業)활동을 하는

9) 조광국(2001)「기녀담, 기녀등장소설의 기녀 자의식 구현 양상에 관한 연구」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240-241

10) 장민정(2004)「조선시대 기녀복식 연구」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34

11) 이강선(2005)「조선시대후기 기생복식이 일반복식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풍속화를 중심으로」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20

12) 北村哲郎 저·이자연 역(1999)『일본복식사』경춘사, p.118

상업적 집단으로 성(性)뿐만 아니라 각종 교양과 예능을 닦아 손님을 접대하였다.

유리문화의 발전은 출판업계에도 영향을 주어 급격히 발전하게 된다. 귀족 중심이던 이전과는 달리 서민, 즉 초민(町人)에 의해서도 창작되고 향유되는 문학이 발생했다. 가나조시(仮名草子)¹³⁾, 우키요조시, 하이쿠, 조루리(浄瑠璃)¹⁴⁾, 가부키 등 서민들이 향유하는 오락적인 문예가 각각 독특한 발전을 보였다. 특히 이하라 사이카쿠(井原西鶴)가 저술한 여러 편의 우키요조시는 인기가 있었다.

사이카쿠의 우키요조시 중 호색물로 가장 유명한 『호색일대남』은 당시 호색풍속을 면밀히 관찰한 것에 근거한 참신한 이야기구성을 펼치고 있어 많은 사람들에게 호평을 받았다.

2.2 근세 한·일 문학작품의 특성

2.2.1 조선시대

서민계층의 의식성장은 자신들의 요구를 담아낼 문화예술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이에 판소리, 탈춤, 시조, 소설, 풍속화 등이 그 요구에 부응하는 장르로 떠오르게 되었다.

그 중 판소리계 소설은 이야기를 중심으로 진행되지만 다른 내용을 수용하는 형식적 개방성, 청중이나 독자의 수준과 취향, 분위기를 중시하며 주된 향류계층이 서민층이라는 점에서 당시 문학의 대표 장르라 할 수 있다. 특히 기녀를 중요한 인물로 서술한 소설로는 『배비장전』¹⁵⁾, 『이춘풍전』¹⁶⁾, 『오유란전』¹⁷⁾, 『춘향전』 등이 있다.

본고에서는 기녀의 딸인 춘향과 여러 기녀들의 자태와 복식에 대한 묘사가 가장 잘 나타나 있는 『춘향전』을 택해 조선후기 기녀복식의 조형적 표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춘향전』은 창작 시기와 작자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조선후기 영조에서 순조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추측되는 소설이다. 여러 설화¹⁸⁾들이 합쳐져 판소리 『춘향가』로 발전하였고 판소리

13) 일본 문학에서 에도 시대 전기에 가나가 섞인 문자로 적힌 근세문학의 모노가타리·실용적인 문장을 통칭한 것으로 교훈적인 것, 실용작·계몽적인 것, 외국 문학의 번안으로 오락을 주로 한 것 등 내용이 잡다한 소설이다.

14) 일본 문학과 음악에서 행해지는 낭송의 한 종류로 인형극인 분라쿠(文樂)의 대본이 되는 수가 많다.

15) 배비장전은 배비장이 제주도에서 만난 기녀 애랑에게 반해 애랑의 계책에 빠져 망신을 당하는 이야기로 양반의 위선을 폭로한 풍자소설이라 할 수 있다.

16) 이춘풍전은 호색적인 이춘풍을 기녀 추월을 통해 상류계층의 방탕하고 호색적인 생활을 풍자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17) 오유란전은 양반인 이생(李生)이 김생(金生)을 따라 평양으로 가서 기녀인 오유란에게 빠져 망신을 당한 후, 과거에 급제해 평양으로 돌아가서 분필이를 한다는 내용으로 호색적인 상류계층의 치부를 풍자한 소설이다.

사설이 소설로 각색되어 전하고 있다. 특히『완관 열녀춘향수절가』는 기녀 춘향을 주인공으로 하여 당시 아름다운 기녀의 외모, 자태, 복식 등에 대한 묘사가 상세하다. 또한 기녀점고 시에 여러 기녀들에 대한 서술을 통해 당시 기녀의 옷맵시를 유추해 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월매와 춘향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되며 기녀복식의 묘사가 뛰어난 『완관 열녀춘향수절가』를 중심으로 『경관 30장본 춘향전』을 참고하여 기녀의 복식의 조형적 표현을 살펴보았다.

2.2.2 에도시대

유리문화의 발전으로 우키요조시 같은 통속적이고 현실적이며 쾌락적인 문학이 유행하게 되었다. 이는 이전시대에 추구하던 내세(來世)의 구원 대신 현세(現世)의 호색(好色)을 즐기거나 남녀의 애정, 부자가 되는 것에 더욱 관심을 집중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1682년에 간행된 이하라 사이카쿠의 『호색일대담』은 현실주의적인 서민문학이며, 이 시기 소설계의 중심이 된 작품이다. 이는 요노스케라고 하는 주인공의 호색생활을 그리고 있는 장편소설로 유곽의 기녀는 물론 유곽 밖의 기녀, 승려, 유부녀, 남자 등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호색을 즐기는 한 남자의 일대기다.

『호색일대담』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문화적 배경은 바로 유리(遊里)문화다. ‘유리’란 기녀가 거주하는 곳으로 성곽을 본뜬 해재(도랑)와 담을 설치한 폐쇄된 공간이다. 즉 『호색일대담』은 이러한 유리의 공간에서 서민의 향락생활이나 경제생활을 다룬 호색물(好色物)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당시 유행하던 문화와 복식 등을 소설 속에 그대로 반영하여 현실감을 더하고 있다.

이에 당시 유곽 생활과 기녀복식에 대해 상세히 나타난 『호색일대담』을 택해 에도시대 기녀복식의 조형적 특성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2.3 기녀 복식의 美

2.3.1 조선시대 문예(文藝)에 나타난 기녀복식

조선후기 여성복식의 유행을 선도한 기녀들은 자신들의 당당함과 예술적 감각을 가장 먼저 복식에 표현하였을 것이다. 당시 서민의식을 반영한 소설 속 기녀의 자태와 복식을 『열녀춘향

18) 성이성과 남원 기녀 춘향의 일화와 그밖에 박색 추녀 설화, 암행어사 설화 등이 있다.

수절가』의 변부사가 기녀점고(妓女點考)하는 부분을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도홍이가 드러를 오난디 홍상자락을 거더안고 아장아장 조춤거러드러을 오더니...¹⁹⁾

명옥이가 드리오난디 기하상(芰荷裳: 마름과 연꽃 무늬의 치마) 고훈 티도 이형이 진중한디
아장거러 가만가만 드러을 오더니...²⁰⁾

이를 통해 당시 기녀들은 기녀점고 시에 새로 부임한 관료에게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해 붉은 치마, 아름답게 장식된 치마 등으로 화려하게 꾸미고 새침한 듯 고운 자태로 인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공통적으로 치맛자락을 걷어 안고 아장아장 걷는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다. 당시 긴 치마를 ‘거들치마’나 에후리쳐 여며 입는 모습이 풍속화에 자주 나타난다. 아장아장 걷는 모습은 여성의 신체 굴곡을 강조한 하후상박의 실루엣을 한 기녀가 새침하게 걷는 모습을 묘사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여러 기녀들이 ‘아장 걷는다’는 묘사가 자주 언급되는 것으로 보아 당시 기녀의 자태를 유추해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기녀의 걸음걸이는 남성들로 하여금 여성스럽고 관능적인 매력을 느끼게 했을 것이다.



<그림 1> 신윤복, 연소담청 <그림 2> 신윤복, 야금모행
(출처: 『조선 풍속사』3, p.215, p.170)

남성들과 단풍놀이에서 돌아오는 기녀를 묘사한 <그림 1>을 살펴보면 왼쪽의 기녀는 흑운 같은 머리채를 매만지며 남성을 유혹하려는 듯한 손짓을 하고 야릇한 미소를 흘리고 있다. 오른쪽의 기녀는 풍성한 머리채에 단풍잎을 꽂아 단풍놀이를 다녀온 것을 전한다. 새침한

19) 설성경 역주(1995) 앞의 책, p.123

20) 설성경 역주(1995) 앞의 책, p.125

표정으로 담뱃대를 물고 있는 모습이 도도해 보인다. 두 기녀 모두 저고리를 꼭 맞게 착용하고 크게 부풀린 푸른색 치마를 착용하여 가늘고 여린 상체를 강조하였다. 또한 속바지를 노출시켜 말을 탄 모습은 사대부여인들과 다른 파격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다. <그림 2>의 기녀는 속옷을 노출시켜 착용한 ‘거들치마’의 파격적인 착장법을 보여준다. 치맛자락을 가슴부근까지 치켜 올려 허리끈으로 고정시켰는데 이는 가는허리를 강조하고 속옷을 노출시켜 당시대 파격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한 것이다. 이와 같이 조선 후기 기녀들은 굴곡적인 하후상박(下厚上薄)의 실루엣으로 가는허리와 가녀린 상체, 풍성한 하체를 강조하고 또한 파격적인 착장법을 통해 관능적인 노출을 주도했다.

2.2.2 에도시대 문예(文藝)에 나타난 기녀복식

에도시대 기녀복식은 오늘날의 패션잡지와 같은 우키요에, 유곽문화를 상세히 묘사한 『호색일대남』과 같은 통속소설을 통해 잘 나타나 있다. 『호색일대남』에서 주인공인 요노스케가 목욕탕의 기녀인 유나(湯女)의 태도를 보고는 실망하여 ‘가쓰야마(勝山)’라는 기녀를 떠올리는 부분을 살펴보면

“자고로 단전풍(丹前風)²¹⁾이란 이런 것이 아닐지니. 그 옛날을 생각해 볼거나. 저택 앞에 목욕탕이 있었는데 그 곳에 가쓰야마라는 인정 많은 때밀이 창녀가 있었느니. 머리 모양으로 가쓰야마풍을 유행시켰고 몸가짐도 훌륭하여 멋들어지게 소매는 넓게 옷단은 짧게, 아무진 맵시를 자랑하며 언제나 색다른 옷차림이었나니. 그녀는 나중에 추켜올려져 요시하라의 타유(太夫)로 이름을 날렸네. 그 친절하고 깔끔함으로 많은 고귀한 분께 칭송 받기도 했네.”²²⁾

‘가쓰야마’는 실존했던 인물로 가쓰야마풍의 머리형태를 유행시킨 기녀다. 실존했던 기녀를 소설 속에 등장시킴으로써 당시 유행하던 문화와 복식 등에 있어 사실감을 더해 주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요노스케는 가쓰야마의 훌륭한 몸가짐과 맵시 있고 독특한 옷차림을 칭찬하였다. 가쓰야마는 소매가 좁고 길이가 길었던 에도시대의 기모노²³⁾를 다른 기녀들과는 달리 소매는 넓고

21) 단전풍(丹前風); 한 때 요시와라 유곽을 압도했던 에도의 목욕탕

22) 이하라 사이카쿠 지음, 손정섭·이주리에 옮김(1998) 『호색일대남』 현실과 미래, p.40 원문은 西鶴 著 松田 修 校注(1992) 『新潮日本古典集成 好色一代男』 新潮社, pp.37-38

「そもそも丹前風と申すは、江戸にて丹後殿前に風呂ありし時、勝山といへる女、すぐれて情もふかく、髪かたち、とりなり、袖口広く、つま高く、万に付けて世の人に替りて、一流これよりはじめて、後はもてはやして吉原にしゆつせして、不思議の御かたにまでそひぶし、ためしなき女の侍り。」

옷단을 짧게 하여 언제나 색다르고 맵시 있게 착용하였다. 이러한 옷차림은 평범한 유나무리 중 가쓰야마가 남성들에게 더욱 매력적이고 돋보일 수 있는 수단이 되었을 것이다.

또한 가쓰야마는 외모와 맵시 있는 옷차림뿐만 아니라, 훌륭한 몸가짐과 상냥하고 친절한 성격을 가진 인정 많은 기녀였음을 강조하고 있다. 『호색일대남』의 전반에 나타난 최고 기녀인 타유들은 아름다운 외모와 매력적인 자태, 맵시 있는 옷차림과 재치 있는 말솜씨뿐만 아니라 친절하며 상냥한 여성의 섬세함을 강조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유곽의 주된 손님이었던 죠닌이 현실에서는 낮은 계층이었지만 유곽에서는 최상의 대접을 누리고자 했고 기녀들이 그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친절함과 섬세한 감성이 더욱 필요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림 3> 사창가 기녀와 타유 일행의 복식 비교

(출처: 우키요에의 美, p.167, 山口県立萩美術館)

<그림 3>은 유곽 외 사창가 기녀와 타유 일행의 복식을 비교한 것으로 왼쪽의 사창가 기녀는 간단한 문양으로 장식된 비교적 짧은 소매의 기모노에 오비를 뒤로 매어 장식하고 있다. 머리 장신구도 간소하다. 이와 비교하여 타유는 꽃문양이 화려하게 장식된 푸른색 우치카케와 (打掛) 붉은색과 분홍색이 중첩된 기모노를 착용하였으며 여러 문양으로 장식된 황색계열의 오비를 앞으로 매듭지어 착용하고 있다. 굽이 높은 게타(下駄)를 신고 많은 장신구로 치장한 머리형태를 통해 타유의 위엄과 화려함을 강조한 모습이다. 타유 뒤에 있는 신조는 비교적 간단한 기모노를 중첩하였지만 넓은 오비를 뒤로 매었으며, 가무로는 타유와 같은 꽃문양이 장식된 후리소데를 노란색, 녹색의 속옷과 중첩하였고 신조와 통일감을 주려는 듯 검은색 오비를 뒤로 매어 장식하였다. 이와 같이 기녀의 등급에 따라 복식이 달랐으며, 고급기녀인 타유는 일행의 복식과도 색채조합을 맞춰 배색감과 경제력을 과시한 듯하다.

23) 『호색일대남』원문의 ‘着衣’는 ‘고소데’라 할 수 있지만 번역본에서 사용한 ‘기모노’라는 명칭과 의미가 다르지 않으므로 본 논문에서는 기모노라고 통일해서 표기하였다.

3. 문학에 나타난 기녀복식의 조형적 표현

3.1 형태 표현

3.1.1 조선시대 문학작품에 나타난 형태 표현

조선후기 『열녀춘향수절가』의 춘향은 퇴기인 월매의 딸로 신분은 기녀이나 아버지가 양반이라 여염집규수와 같이 나타나 있다. 하지만 춘향의 옷차림과 자태는 당시 기녀와 같을 뿐만 아니라 변부사(府使)가 춘향이 수청을 들지 않아 하옥하는 처사 역시 기녀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춘향을 기녀의 신분으로 보고 복식의 조형적 특성에 대한 고찰을 하였다.

판소리계 소설인 『열녀춘향수절가』는 판소리와 같이 장면의 구체적인 묘사가 뛰어나다. 특히 절세 미녀인 기녀 춘향의 외모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난초 갓치 고훈 머리 두 귀를 눌러 곱게 싸아 금봉치를 정제하고, 나운을 돌운허리 미양의 간는 버들 심이 업시 되운 듯, 아릅답고 고은 턱도 아장거려 흔들거려 가만가만 나올저그... 슈화 유문 초록 장옷 남방사 훗단 초미 훨훨 버셔 거려두고, 자주 영초 슈당허을 석석 버셔 던져두고, 퍽방사 진술 속것 턱 미티 훨씬 추고, 연숙마 춘천줄을 섬섬옥수 넉짓드러 양슈의 갈나 잡고, 퍽능 보선 두 발길노 섭적 올라 발 구를 제, 세류갓튼 고훈 몸을 단정이 논이난디, 뒤 단장 옥비녀 은죽절과 압치레 볼작시면, 밀화장도 옥장도며 광원사 접저고리 제 식 고름의 턱가 난다.²⁴⁾

이와 같이 춘향은 봉황새긴 비녀, 옥비녀, 은죽절, 밀화장도, 옥장도 등의 값비싼 장신구를 패용했으며 비단 치마, 비단 겹저고리, 좋은 초록 장옷, 흰 비단 새 속옷, 자주색 비단 꽃신 등의 고급 직물을 사용했다. 이는 춘향이 경제적으로 풍요로웠고 여느 기녀들처럼 호화롭게 단장한 것을 알 수 있다. 기는허리를 강조하여 겹겹이 입은 흰 속옷으로 부풀리고 그 위에 남색 홀 명주치마를 입어 세류같이 가는 몸을 흔들거리며 아장 걸어가는 자태는 남성들에게 여성미와 함께 보호본능을 일으켰을 것이다. 또한 흰 속옷을 턱밑까지 추켜올려 그네를 뛰는 모습은 은폐시켜야 하는 속옷의 노출로서 관능미를 전했을 것이다. 춘향이 기녀들이 추구하는 관능미와 여성미를 동시에 가진 여성임을 알 수 있다. 반면 춘향이 없은머리가 아닌 땡아 내린 머리를 하고 있음은 다른 기녀들과 차이를 보인다. 땡아 내린 머리형태는 동기(童妓)에게

24) 설성경 역주(1995) 앞의 책, pp.30-32

서 나타나는 것으로 춘향이 아직 머리를 올리지 않은 기녀임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춘향의 외모에 대한 묘사는 이본(異本)마다 각기 다른데 그 중 이야기 중심의 『경판 30장본 춘향전』에 나타난 춘향의 외모에 대한 표현은 『열녀춘향수절가』와 차이점이 드러난다.

본읍 기생 춘향이 추천하러 의복단장 치레할 새, 아리따운 고운 얼굴, 팔(八)자 같은 눈썹을
봄빛으로 화장하고, 흰 이빨 붉은 입술은 마치 피지 않은 도화(桃花)가 하룻밤 이슬에 반만 핀
모습이다. 검은 구름같이 흩어진 머리를 반달 같은 와룡빛으로 싹싹 흘리 빗겨 전반같이 넓게
땀고, 자주색 비단 넓은 땀기 땀시 있게 드리웠구나. 흰 모시 깨끼적삼, 보라색 비단 속저고리,
물명주 고쟁이, 흰 비단 넓은 바지, 은은한 비단 결막이, 봉을 그린 남빛 비단 치마를 잔살 잡아
떨쳐입고, 비단 주머니, 명주버선, 자주색 꽃신을 날 출(出)자로 제법신고, 앞에는 민무늬 대비녀,
뒤에는 봉을 그린 금비녀, 손에 옥지환, 귀에는 달 모양 귀걸이라. 노리개는 더욱 좋다. 향기로운
좋은 향을 차고, 산호가자, 밀화 패물이며, 금실 달린 옥장도를 오색 실로 끈을 꿰어...²⁵⁾

두 소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것은 동기라 할 수 있는 춘향의 머리 형태이다. 땀아서 땀기를 늘어뜨린 후 여러 가지 머리 장신구로 장식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또한 남색 치마에 겹겹이 흰색 속옷을 입고 자주색 비단 꽃신을 신어 치장하였으며 값비싼 노리개를 패용하였다. 이 또한 춘향의 복식이 상당히 호화로웠음을 의미 한다.

반면, 『경판 30장본 춘향전』에서는 춘향의 몸매에 대한 묘사보다 얼굴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다. 팔(八)자 같은 눈썹과 흰 치아, 붉은 입술은 반만 핀 도화라는 표현에서 분대화장을 했던 기녀와는 달리 아직 분대화장을 하지 않은 춘향의 모습이 드러난다.

이와 같이 두 소설을 통해 살펴본 매력적인 기녀 춘향의 모습은 흑운(黑雲)같은 풍성한 머리술과 윤기 흐르는 머릿결, 가는 눈썹과 복숭아빛 뺨, 앵두같이 붉은 입술에 흰 피부를 가진 고운 얼굴의 여인이다. 또한 세류와 같은 가늘고 여린 몸매에 옷맵시가 뛰어나고 장신구로 화사하게 장식하여 돋보이는 모습은 남성들에게 매력적으로 느껴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기녀의 매력적인 자태 묘사는 변부사가 부임하여 기녀접고하는 부분에서 자세하게 나타난다.

명월이가 드러울 오난디 나군자락을 거듬거듬 거더다가 세료흥당의 싹 붓치고 아장아장 들러울
오더니...도홍이가 드러를 오난디 흥상자락을 거더안고 아장아장 조춤거러 드러울 오더니...치봉이
가 드러오난디 나운을 두른 허리 땀시 있게 거더안고 연보를 정이 옮겨 아장거러 드려와...연심이가
드러오난디 ㄴ·상을 거더안고 나말 수혜 쓸면서 아장거러 가만가만 드러오더니...명옥이가 드러오

25) 송성옥 옮김(2004)『춘향전』민음사, p.189

난디 기하상 고훈 토티 이헝이 진중한디 아장거러 가만가만 드러올 오더니...잉잉이가 드러오난디
홍상자락을 에후리쳐 세류홍당의 짝 붓치고 아장거러 가만가만 드러오더니...낙춘이가 드러올
오난디 제가 잔득 땀시있게 드러오난 체하고 드러오난디, 시면한단 말은 듯고 이마씩의셔 시작중·
야 괴뒤까지 파지치고 분성적한단 말은 드러던가 기분 성양 일곱 돈 엇치를 무지금하고 사다가
성갓트 회칠하듯 반죽해야 온 낫스다 뭉칠하고 드러오난디 키난 사그너 장승만현 연이 초미자락을
휩신 추워다툽 밋트 짝 붓치고 무논의 곤이 거름으로...²⁶⁾

명월, 채봉, 여심, 낙춘 등 여러 기녀들이 점고를 한다. 여러 기녀들의 자태에 공통적으로
묘사된 부분은 치맛자락을 가슴부분에 붙이고 아장아장 가만가만 들어온다는 것이다. 이는
당시 긴 치맛자락을 걷어 가슴부분까지 끌어올려 ‘거들치마’로 입었거나 여며 입은 모습을
묘사한 것이다. 기녀점고를 위해 값비싼 비단치마를 입고 둔부를 호늘거리며 걸어 들어오는
모습에서 기녀복식의 율동미가 느껴진다.

반면 기녀 낙춘은 과한 화장에 잔뜩 맵시 있는 척하고 들어온다고 비꼬아서 설명하고 있다.
기녀의 과한 화장은 매력적이지 않은 것이다. 또한 키가 크고 몸집이 큰 것을 장승만현 년이라
하여 남성들은 아담하고 가늘며 여린 몸매를 선호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등바등 바빠
걷는 모습을 단정치 못한 방정맞은 걸음으로 묘사하였다.

이와 같이 남성들은 기녀의 하후상박(下厚上薄)의 옷맵시와 풍성한 치마를 아름답고 걷는
고운 발걸음의 율동미를 선호했을 것이다. 또한 분대화장을 하되 과하지 않고 앞서 설명한
춘향과 같이 희고 고운 얼굴을 선호한 것을 알 수 있다.

3.1.2 에도시대 문학작품에 나타난 형태 표현

에도시대 유곽문화를 상세히 서술한 『호색일대남』에는 아름다운 기녀의 모습과 자태에
대한 묘사가 삽화와 함께 나타나 있다. 조선시대 『춘향전』의 춘향과 같이 『호색일대남』에서
최고의 기녀라 서술하고 있는 ‘유기리(夕霧)’의 외모에 대한 구절을 살펴보았다.

몸으로 말할 것 같으면 말이 필요 없을 정도의 고운 머릿결,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다운
맨 얼굴, 게다가 다리에 흠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다. 손가락은 가늘고 몸은 뚱뚱하지도 마르지도
않은 적당한 몸매, 머리에 든 것도 꽤 있어 보이고 목소리는 낭랑하고 피부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뽀얗다.²⁷⁾

26) 설성경 역주(1995) 앞의 책, pp.122-126

27) 이하라 사이키쿠 지음, 손정섭·이주리에 옮김(1998) 앞의 책, p.200 원문은 井原西鶴 著 松田 修校注

유기리에 대한 묘사는 머릿결과 몸매에 초점을 두고 있다. 고운 머릿결, 아름다운 맨얼굴, 흠 없는 다리, 가느다란 손가락, 뚱뚱하지도 마르지도 않은 적당한 몸매, 지성미, 낭랑한 목소리, 무엇보다도 흰 피부를 가진 유기리는 단연 최고의 기녀라 서술하고 있다. 이는 당시 남성들이 바라는 이상적인 기녀의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춘향전』에서 나타나는 조선시대 기녀의 풍성하고 반듯한 머릿결, 고운 얼굴, 박속같은 흰 살결, 섬섬옥수와 유사한 점이 많다. 반면 뚱뚱하지도 마르지도 않은 적당한 몸매, 흠 없는 다리라는 표현은 조선시대 기녀의 모습과는 차이가 있다. 조선시대 기녀는 가는 허리를 강조하고 있으나 에도시대 기녀는 흠 없는 다리를 강조하고 있다. 이는 기모노의 착장방법에서 오는 차이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상하 분리가 없는 기모노를 중첩하여 여미는 형태로 기녀의 매끈한 다리 노출은 남성에게 매혹적으로 느껴졌을 것이다.

『호색일대남』에 나타난 삽화 <그림 4>을 통해서 색채, 소재 등은 알 수 없으나 기녀 유기리는 전체적으로 마름모의 기하문과 나뭇잎문양으로 장식된 길고 풍성한 기모노를 목과 가슴부위가 부각되도록 입었다. 이는 적당히 풍성한 굴곡 없는 일자형 실루엣이 살집 있는 적당한 몸매와 조화를 이루는 듯하다. 머리형태는 길게 늘어뜨려 여성스러운 느낌을 강조했다. <그림 5>에서도 유사한 형태로 나타나는데 <그림 11>에는 올림머리 형태가 나타난다. 이는 『호색일대남』을 통해서 기녀의 머리형태가 길게 늘어뜨리는 형태에서 점차 올림머리형태로 바뀌어 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호색일대남』에는 각 장마다 이야기의 핵심이 되는 장면을 삽화로 그려 넣어 기녀복식의 묘사와 줄거리 이해에 도움을 주고 있다.



<그림 4> 『新潮日本古典集成 好色一代男』p.181

기녀 하쓰네(初音)의 모습을 자세히 묘사한 구절은 다음과 같다.

살펴보니 그 중 하쓰네의 복장이 가장 눈에 띄었다. 봄내음이 가득한 하늘색 속옷을 입고 겉에는 단자(緞子)²⁸⁾ 옷에 오색 아플리케를 입었는데...²⁹⁾

(1992)『新潮日本古典集成 好色一代男』新潮社, p.180

「姿をみるまでもなし、髪を結ふまでもなし、地顔素足の尋常、はづれゆたかにほそく、なり恰好しとやかに、ししのつて、眼ざ しぬからず、物ごしよく、はだへ雪をあらそひ、床上手にして名譽の好にて、命をと所あつて、」

28) 紋織物の 일종



<그림 5> 『新潮日本古典集成

好色一代男』p.194

하늘색 속옷과 오색 이플리케로 여러 문양을 장식한 단자의 기모노를 착용하고 있음을 묘사하였다. 이를 통해 기모노를 중첩하고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그림 5>는 화가 난 하쓰네가 실수한 주인공에게 발길질을 하는 장면이다. 삽화에 나타난 의복은 소설에서 묘사된 것은 아니지만 귀갑문이 장식되어 화려하다. 기모노를 중첩하여 적당히 넉넉한 일자형의 실루엣이 드러나며, 다리가 노출되어 안감의 짙은 색상과 대비를 이루고 있다. 이는 에도시대 기녀복식의 관능적인 느낌을 보여준다. 머리형태는 유기리와 같이 길게 늘어뜨리는 형태로 여성스럽다.

이처럼 당시대 기녀는 미의 기준이었으며 기녀복식을 모방할 수 있는 방법에는 여성평판기나 우키요에에 그려진 기녀와 같이 단장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실물이 아닌 글과 그림에 나타난 기녀를 모방하기만 한 것으로는 기녀들이 가진 화술, 자태 등을 알 수 없었을 것이다. 당시 이와 같은 현상을 비꼬아서 서술한 부분에서 살펴보면,

요노스케가 머물고 있던 그 시골에서는 여자들이 줄무늬 기모노를 입으면 세련된 것으로 여기는 지 다들 가지각색의 줄무늬 명주옷을 입고 금실로 수놓은 것을 목에 걸고 있었다. 허리에 매는 서진(西陣)식 짧은 금직(今織)³⁰⁾을 억지로 뒤로 매고 복대는 붉게 염색한 에치고 조후를 두르고 있다. 화장을 하지 않아도 예쁜데 굳이 분을 하얗게 바르고 이미는 그냥 동그랗게 깎아 그 언저리는 검게 먹으로 색칠하고 머리는 높이 말아 올려 앞머리를 조금 나누어 풀 먹인 끈으로 땀다. 빨간색 끈이 달린 섣다(雪踏)의 긴 옷자락을 끌리지 않게 들고 종종걸음을 치고 있는 모습을 보니 촌스러워...³¹⁾

29) 이하라 사이카쿠 지음, 손정섭·이주리에 옮김(1998) 앞의 책, p.211 원문은 井原西鶴 著・松田 修校注(1992)『新潮日本古典集成 好色一代男』新潮社, p.192

「春めきて空色の御はだつき, 中にははかばか縞子にこぼれ梅のちらし, 上は緋緞子に五色のきり付け」

30) 당시 유행하던 비단의 일종

31) 이하라 사이카쿠 지음, 손정섭·이주리에 옮김(1998) 앞의 책, p.107 원문은 井原西鶴 著・松田 修校注(1992)『新潮日本古典集成 好色一代男』新潮社, p.94

「縞をよきとおもへばてそ, いづれも紬の品をかへ, 金入りの襟をかけぬといふ事ない。帯は今織の短きを無理にうしろにむすび, 二布は越後晒赤染にして, そのまま美しき顔にも是非おしろひを塗りくり, 額は只丸く, きは墨こく, 髪はぐるまげに高く, 前髪すくなくわけて水引にて結び添へ, 赤いはな緒の雪踏をはき, 懷のうちより手をさし入れ襟を引きあげ, ちよこちよことありくなりふり, いやながら外に何もなければ...」

‘줄무늬 기모노를 입으면 세련된 것으로 여기는지’라는 구절은 기녀들이 많이 착용하였던 줄무늬 기모노를 입는 것만으로는 기녀와 같이 세련되고 우아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또한 기녀를 따라하려 분을 하얗게 바르고 머리를 매만진 모양새 역시 우키요에를 보고 모방한 듯 어색하다. 전체적으로 기녀를 모방한 머리형태와 화장, 의복까지 갖추었지만 우아한 걸음 걸이까지는 그림을 보고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종종걸음 치는데, 주인공은 그 모습을 보며 촌스럽고 추한 여성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는 조선시대 『열녀춘향수절가』의 낙춘과 같이 아름다운 기녀의 화장과 의복을 모방하려하지만 기녀의 맵시와 세련된 자태는 걸모습을 꾸며 나타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한 듯하다.

이와 같이 에도시대의 남성이 선호한 기녀는 검고 풍성한 부드러운 머릿결에 흰 피부의 고운 얼굴, 마르지도 뚱뚱하지도 않은 적당한 몸매, 흠 없는 매끈한 다리, 가늘고 작은 손과 발이었다. 또한 박식한 지식, 낭랑한 목소리, 우아하고 세련된 자태를 가져야 했다. 여러 장의 기모노를 중첩하고 오비를 맨 적당히 넉넉한 일자형 실루엣이 나타난다. 이는 남성들이 마르지도 뚱뚱하지도 않은 적당한 몸매를 선호한 것이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된다. 이와 같은 미모와 옷맵시뿐만 아니라 손님을 배려하는 인정 많은 모습을 선호하였다. 이는 유곽이란 공간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의 기녀에게 최고의 대접을 받고자 하는 부유한 남성들의 유리공간이었기 때문이다.

3.2 색채 표현

3.2.1 조선시대 문학에 나타난 색채 표현

『춘향전』에 나오는 기녀복식의 색채 묘사 중 가장 두드러진 색상은 붉은색과 흰색이라 할 수 있다. 우선 붉은색에 대한 부분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오고갈 제 살페보니 녹음 속의 홍상자락이 바람결의 닻치니...³²⁾

잉잉이가 드러오난디 홍상자락을 에후리쳐 세류홍당의 싹 붓치고 아장거러 가만가만 드러오더니...³³⁾

녹의홍상 괴싱들은 빅수나삼 뉘피 드러 춤을 추고...³⁴⁾

32) 설성경 역주(1995), 앞의 책, p.32

33) 설성경 역주(1995) 앞의 책, p.124

34) 설성경 역주(1995) 앞의 책, p.202

그네를 뛰는 춘향의 붉은 치맛자락이 녹색 숲과 어우러져 필력이는 모습과 기녀 앵앵이 붉은 치마를 입고 기녀점고하는 모습, 붉은 치마를 입은 기녀들이 춤을 추는 모습을 묘사한 구절이다. 이와 같이 기녀들을 묘사하는 장면에서 붉은 옷, 붉은 치마를 자주 서술하는 것으로 보아 기녀들이 화려한 붉은 치마를 선호하였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그림 6> 신운복, 단오풍정 <그림 7> 평양감사향연도, 부벽루연회
(출처: 조선 풍속사 3. p.86,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추천하는 모습의 <그림 5>의 기녀는 노란 삼회장 저고리에 붉은 치마를 추켜올려 하얀 속옷을 드러내고 있다. 이는 앞서 설명한 추천하는 춘향의 모습처럼 여성스럽고 관능적이다. 붉은 입술에 붉은 치마를 입은 기녀는 ‘단오풍정’ 중앙에 자리해 가장 돋보이며 매력적인 존재감을 과시한다. <그림 6>은 연회에 참석한 기녀들의 모습이다. 생김새에 대한 자세한 묘사는 나타나 있지 않으나 기녀들의 복색은 자세하게 표현되어 있다. 푸른색 치마를 입은 기녀와 붉은색 치마를 입은 기녀들이 1:1의 경향으로 나타나 있으며 붉은 치마를 입은 기녀는 저고리 색상도 화려한 황색과 녹색을 입어 좀 더 화려한 배색으로 나타난다. 이를 통해 기녀들은 강렬한 붉은색 치마를 입고 화려한 배색의 저고리를 착용하여 자신을 더욱 돋보이도록 단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흰색에 대한 서술은 의복에 대한 묘사보다는 피부에 대한 설명에서 자주 나타나며 다음과 같이 표현되어 있다.

설부화용(雪膚花容)이 남방(南方)의 유명키로... 35)

근덕을 밟고 네가 뿔 제 외씨 갓탄 두 발길노 빙운간의 논일 적기 홍상 자락이 펄펄, 빅방사 속것가리 동남풍의 펄넝펄넝, 박속 갓탄 네 살거리... 36)

35) 설성경 역주(1995) 앞의 책, p.34

당시 기녀는 분대화장이라 하여 피부를 희게 표현하였는데 춘향 역시 흰 피부를 가진 꽃다운 얼굴이라 묘사하고 있다. 또한 ‘박속같은 네 살결이’라는 구절로 흰 피부를 구체적으로 서술하였다. 이를 통해 당시 흰 피부에 대한 동경을 알 수 있으며 흰 피부가 미인의 기준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이와 같이 희고 붉은 색상으로 춘향의 외모에 대해 그림을 그리듯 자세히 묘사한 구절이 있다.

얼굴이 조출ㅎ·니 청강의 노난 학이 설월의 빗침 갖고 단순호치 반기ㅎ·니 별도 갖고 옥도갓다.
연지를 품은 듯, 자하상 고은 틱도 어린 안기 석양의 빗치온 듯, 취군이 영농ㅎ·야 문치는 은하수
물결 갓다.³⁷⁾

흰 피부, 흰 치아, 붉은 입술은 당시 기녀들이 분대화장 시 강조한 분화장, 연지화장을 한 모습과 같다. 이렇듯 분대화장을 한 춘향의 모습은 별과 같이 빛나고 옥과 같이 아름답다. 또한 연지를 품은 듯한 자긋빛 치마를 입은 춘향의 고운 태도는 석양에 비치는 안개 같이 몽환적이며, 푸른 치마를 겹쳐 입은 모습은 은하수 물결 같이 빛이 난다고 묘사하였다. 이는 구체적인 색채표현을 통해 그림을 그리듯 춘향의 모습을 묘사하여 선녀와 같은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춘향전』에서 표현된 화려한 원색과 흰 살결 등은 풍속화에서도 자주 나타난다. 반면 풍속화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 흰 치아, 보라색 속적삼, 흰 모시 적삼의 묘사가 소설을 통해 드러난다. 이와 같이 소재를 색채와 함께 더욱 생동감 있게 표현하여 화려한 기녀의 복색을 상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3.2.2 에도시대 문학에 나타난 색채 표현

『호색일대남』에 나타난 기녀 복색의 특징은 『춘향전』과 달리 계절과 관련지어 자세히 그림을 그리듯 묘사된다.

살펴보니 그 중 하쓰네(初音)의 복장이 가장 눈에 띄었다. 봄내음이 가득한 하늘색 속옷을 입고
겉에는 단자(緞子) 옷에 오색 아플리케를 입었는데 하고이타(羽子板)³⁸⁾, 액을 쫓는 활, 구슬 등을

36) 설성경 역주(1995) 앞의 책, p.38

37) 설성경 역주(1995) 앞의 책, p.40

38) 배드민턴 채와 비슷하게 생긴 놀이에 쓰이는 채

눈부시게 장식하였다. 겉옷에는 하쓰네라는 이름에 어울리게 소쩍새를 새겨 놓아³⁹⁾, 그 앉아있는 품이 볼수록 사랑스러웠다.⁴⁰⁾

에도시대 기녀복식에는 계절에 따라 다양한 색상이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구절이다. 하쓰네라는 기녀는 봄에 어울리는 하늘색 속옷을 입고 겉에 하고이타와 활, 구슬 등의 일상생활용품이 수놓아 장식한 오색 아플리케의 기모노를 착용했다. 화려하게 장식된 기모노에는 하쓰네(初音)라는 이름에 맞는 소쩍새를 새겨 놓았다고 묘사한다. 이는 기녀 하쓰네를 상징하는 문양일 것으로 생각된다.

그 여자는 늦봄에 어울리는 등나무색 기모노를 입고 갈색 수자(繻子)⁴¹⁾의 넓은 띠를 멋들어지게 가위자로 묶고...⁴²⁾

이는 기녀의 계절에 맞는 색채 감각이 돋보이는 구절로, 늦봄 등나무색상과 갈색 오비의 유사색상 배색으로 세련미를 더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계절에 따른 색채의 조화로운 배색뿐 아니라 화려한 색상의 대조적인 배색의 묘사도 나타난다.

다카하시(高梁)의 그 날 옷차림은 붉은 매화로 염색한 속옷에 백자수 겉옷, 위에 두른 노랑 비단 옷 소매에는 빨간 소맷단을 땀다. 머리카락은 소녀머리⁴³⁾로 하고 금 끈을 걸쳤는데, 그 고운 모습에 마치 선녀같다고나 할까.⁴⁴⁾

39) 하쓰네(初音)는 소쩍새, 휘파람새 등이 그 해 들어 처음 우는 소리라고 한다.

40) 이하라 사이카쿠 지음, 손정섭·이주리에 옮김(1998) 앞의 책, p.211 원문은 井原西鶴 著 松田 修校注 (1992)『新潮日本古典集成 好色一代男』新潮社, p.192

「春めきて空色の御はだつき, 中にはかば繻子にこぼれ梅のちらし, 上は緋緞子に五色のきり付け, 羽根・羽子板・破魔弓玉ひかりをかざり, かたには注連縄・ゆづり葉・おもひ葉数をつくし, 紫の羽織に, 紅の絛紐を結びさげ, 立ち木の白梅に名をなく鳥をとまらせ, ぬきあしのぬめり道中, 見てなほ恋をもとむる。」

41) 공단, 새틴

42) 이하라 사이카쿠 지음, 손정섭·이주리에 옮김(1998) 앞의 책, p.42 원문은 井原西鶴 著 松田 修校注 (1992)『新潮日本古典集成 好色一代男』新潮社, p.39

「色付けの薑に塗竹箸を取りそへ, をりふし春ふかく, 藤色のりきん縞に, わけしりだてなる茶じゆすの幅広, はさみ結びにして, 朝鮮さやの二の物をほのかに, のべ紙に数齒枝をみせ懸け,」

43) 머리 위에 높이 둥근 원을 좌우에 만든 머리형태

44) 이하라 사이카쿠 지음, 손정섭·이주리에 옮김(1998) 앞의 책, p.228 원문은 井原西鶴 著 松田 修校注 (1992)『新潮日本古典集成 好色一代男』新潮社, p.209

「高橋その日の装束は, 下に紅梅, 上には白繻子に三番叟の縫紋, 萌黄の薄衣に紅の唐房をつけ, 尾長鳥のちらし形, 髪ちて額にして金の平髻を懸けて, その時の風情, 天津乙女の妹などとこれをいふべし。」

기녀 다카하시가 입은 기모노 중첩의 배색미가 드러나는 부분이다. 원색의 배색을 통해 화려한 대비를 주었으며 흰색을 사용하여 화려한 배색을 더욱 확실히 나타냄과 동시에 은은하게 어울릴 수 있도록 색채를 조합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머리 위에 좌우 높이 둥근 원을 만들어 금색 끈을 걸쳤는데, 이는 노란 겉옷과 함께 통일감을 주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8> 見返り美人図 <그림 9> 花魁と御供 <그림 10> 화장하는 기녀

(출처: 우키요에의 美, p.243, 東京国立博物館, 근세 일본·한국의 화장문화 비교, p.301)

<그림 8>은 하늘색과 황색 계열을 사용하여 꽃이 피는 봄을 그려낸 듯한 기모노를 착용한 기녀의 모습이다. 봄의 상징인 벚꽃과 흐르는 강을 복합적으로 장식해 넣음으로써 꽃향기가 가득한 봄을 연상시키는 기모노는 기녀의 신선하고 여성스러운 매력을 한층 더하고 있는 듯하다. 또한 책과 같은 일상용품의 문양을 사용하여 에도시대 특유의 다양한 문양을 배치하였다. <그림 9>의 오이란(花魁)은 흰색과 붉은 기모노를 중첩하여 갈색계열의 오비를 두르고 그 위에 학과 구름문양으로 장식된 푸른색 우치카케를 착용하고 있다. 이로써 원색 대비의 강렬한 느낌을 담았으며 흰 피부를 더욱 돋보이게끔 했다. 가무로 역시 하늘색 속옷과 꽃과 잎 문양으로 장식한 붉은 후리소데를 중첩하고 오이란과 같은 오비를 둘러 통일감을 이루고 있다.

복식의 다양한 색채 표현과 함께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다음 구절과 같다.

...우선 눈에 띄는 것이 흰 목덜미였다...⁴⁵⁾

45) 이하라 사이키쿠 지음, 손정섭 · 이주리에 옮김(1998) 앞의 책, p.148 원문은 井原西鶴 著 松田 修校注 (1992)『新潮日本古典集成 好色一代男』新潮社, p.131
「まづは首すぢの白き事, まづは首すぢの白き事」

에도시대 기녀복식은 기모노의 깃을 뒤로 넘어가게 착용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가늘고 하얀 목선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위 구절에서와 같이 흰 목덜미는 남성들에게 가녀리고 관능적인 여성의 매력을 어필하는 부분이다. 이에 대한 묘사나 구절은 더 이상 나타나 있지 않지만 기녀의 가늘고 하얀 목덜미는 풍속화에서도 나타난다.

<그림 10>은 거울에 비춰 목덜미를 하얗게 화장하는 기녀의 모습이다. 이처럼 기녀는 얼굴 뿐 아니라 목덜미까지도 분을 발라 화장했다. 검고 풍성한 올림머리 아래로 드러난 가늘고 흰 목덜미가 겹겹이 겹쳐 입은 화려한 색상의 기모노와 대비되어 더욱 눈에 띄도록 연출한 것으로 생각된다.

3.3 소재 및 문양 표현

3.3.1 조선시대 문학에서 나타난 소재 및 문양 표현

『춘향전』에 표현된 소재 표현은 앞서 살펴본 춘향의 외모를 설명하는 구절에서 주로 나타났으며 그 외에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기녀는 모시를 이용하여 은근한 노출의 관능미를 나타냈으며 다양한 비단과 명주 등 값비싼 소재의 복식을 착용함으로써 부를 과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소재와 함께 풍속화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던 복식문양에 대한 구절이 나타난다.

난(蘭)이며 봉(鳳)을 새긴 비단 치마를 섬섬옥수로 잡아 걸쳐 맵시 있게 비켜섰다.⁴⁶⁾

명옥이가 드리오난디 기하상(菱荷裳: 마름과 연꽃 무늬의 치마) 고흔 티도 이형이 진중한디 아장거러 가만가만 드러올 오더니...⁴⁷⁾

춘향이 난과 봉을 수놓아 화려하게 장식한 비단 치마를 입은 모습과 명옥이 마름모와 연꽃 문양의 치마를 입었다는 구절이 나타난다. 풍속화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아 알 수 없었던 점으로 소설 속의 묘사를 통해 당시 기녀는 수나 그림을 통해 치마를 화려하게 장식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6) 송성옥 옮김(2004) 앞의 책, p.192

47) 설성경 역주(1995) 앞의 책, p.125

3.3.2 에도시대 문학에 나타난 소재 및 문양 표현

『호색일대남』에 표현된 소재는 비단, 수자, 단자, 외국직물 등으로 다양하며 당시 유행하였던 고가의 광택 있는 소재들이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기녀들은 값비싼 소재의 기모노를 다양하고 화려한 문양으로 장식해 부의 과시와 미적 감각을 드러냈을 것이다. 또한, 앞서 설명한 기하학문양, 식물문양, 동물문양, 생활용품문양 등이 복합적으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복식문양은 우키요에와 유물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호색일대남』에서는 기녀들이 세련된 줄무늬문양을 자주 사용하여 이를 유행시켰음을 알 수 있다. 그 외에 기녀를 상징하는 문양에 대한 묘사가 나타난 부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흰 점박이옷과 외국직물로 만든 옷을 입고 가슴 높이 허리띠를 맨 모양이 천사 같았다...자기 주변의 가무로도 한 쌍으로 옷을 입히고 자신의 중개인이나 하인마저도 단풍 문장을 붙이게 하여 그 일행의 움직임이 흡사 가을의 산과 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 같았다.⁴⁸⁾

기녀 타카오(鷹夫)를 상징하는 문양이 단풍임을 묘사한 구절이다. <그림 11>은 고가의 외국직물을 사용하여 잔뜩 맵시를 낸 기녀 타카오가 일행에게도 자신을 상징하는 문양인 단풍으로 장식된 옷을 입혀 그들이 움직이는 모양이 가을의 산과 같음을 삽화로 나타낸 것이다. 이는 자신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어디서든 자신을 어필하고자 하는 자신감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에도시대에는 다양한 고급소재와 다양한 문양이 나타났으며 특히 문양은 삽화를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었다. 또한 에도시대 세력가 집안이나 권위 있는 사람들과 같이 기녀 역시 기녀를 상징하는 문양이 존재했으며 이를 일행에게 입혀 부와 명예, 자신을 어필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림 11> 『新潮日本古典集成 好色一代男』p.225

48) 이하라 사이카쿠 지음, 손정섭·이주리에 옮김(1998) 앞의 책, p.242 원문은 井原西鶴 著 松田 修校注 (1992) 『新潮日本古典集成 好色一代男』新潮社, p.225

「惣鹿の子唐織類ひ、帯は胸高にして、身を据ゑてのあし取り、また上方とは違うて目に立たぬ物がは。近付きにも言 葉を懸けず、禿も対の着物、二人引きつれ、やり手六尺までも御紋の紅葉、色好みの山々更に動くがごとし。」

4. 결론

조선후기와 에도시대는 상업 자본주의가 발달하여 서민계층의 경제력과 주체적 의식이 성장하면서 서민문화의 발달을 일으켰다. 이는 문학에도 영향을 미쳐 독특한 서민문학이 나타났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조선후기의 서민문학은 상류계층의 호색적인 모습이나 비리를 풍자하는 성격이 강했지만 에도시대 서민문학은 통속적이고 현실적이며 쾌락적인 성격이 강하였다.

또한 문학에 나타난 조형적 표현에도 차이가 드러났다. 『춘향전』의 경우는 기녀의 자태, 복식 착용방법에 대한 묘사가 많았던 반면 『호색일대남』에는 기녀복식의 색상과 문양에 대한 묘사와 올바른 기녀상에 대한 강조가 나타났다.

근세 한·일 문학에 나타난 기녀복식의 조형적 표현을 연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한·일 문학작품에 나타난 기녀복식의 형태 표현의 차이점과 유사점을 살펴보면, 차이점으로 『춘향전』에 나타난 조선후기 기녀복식의 형태 표현은 세류흉당(細柳胸堂)의 저고리를 속옷을 겹겹이 입어 풍성하게 부풀린 치마와 착용한 것이다. 이는 굴곡적인 하후상박(下厚上薄)의 실루엣으로 나타났다. 또한 풍성한 치마를 에후리쳐 여며입거나, ‘거들치마’로 입고 걸어갈 때의 울동미를 표현한 걸음걸이에 대한 묘사가 두드러졌다. 『호색일대남』에 나타난 에도시대 기녀복식의 형태 표현은 기모노를 중첩하고 오비를 매듭지어 장식한 것이다. 이는 적당히 풍성한 일자형 실루엣을 이루었는데 당시 남성이 뚱뚱하지도 마르지도 않은 몸매를 선호한 것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매끈한 다리와 흰 목덜미의 관능적인 느낌에 대한 묘사가 나타난다. 이는 기녀의 움직임에 따른 다리의 노출과 기모노 깃을 뒤로 넘겨 드러낸 흰 목덜미를 관능적인 미의 대상으로 여겼음을 보여준다.

양국 문학작품에 나타난 형태 표현의 유사점은 기녀의 흰 피부와 단정한 머릿결, 고운 외모를 가진 것이다. 이는 당시 미의 기준이라 생각된다. 그리고 노출을 통한 관능미의 연출이다. 『춘향전』에서는 가는 허리와 속옷을 노출함으로써, 『호색일대남』의 경우 가늘고 흰 목덜미와 다리를 노출함으로써 관능미를 연출했다. 또한 당시 양국의 기녀는 주로 상류층과 부유한 남성들을 접대했으므로 그에 맞는 높은 교양과 예능을 갖췄다는 점이다.

2) 한·일 문학작품에 나타난 기녀복식의 색채 표현의 차이점과 유사점을 살펴보면, 차이점으로 『춘향전』에 나타난 기녀복식의 색채 표현은 붉은색과 흰색이 두드러진다는 점이다. 붉은색이 강렬하고 관능적인 느낌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흰색은 의복보다는 치아, 피부 등에서 나타난다. 이는 붉은 입술, 흰색의 의복과 대비를 이루었을 것이다. 『호색일대남』의 경우

계절에 맞는 배색에 대한 표현이 나타난다. 주로 오방색을 사용한 조선시대 기녀와 달리 간색을 사용하여 계절에 맞는 유사색상 배색을 통해 세련된 배색미를 드러내었다. 또한 화려한 원색과 은은한 간색을 감각적으로 조화시켜 배색의미를 한껏 뽐내었다.

양국 문학작품에 나타난 색채 표현의 유사점은 흰 피부와 대비되는 원색의 의복을 착용했다는 점이다. 이는 눈에 띄는 원색의 색채대비로 남성들의 시선을 끌기 위한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에도시대 기녀의 경우 원색 기모노를 착용하여 가늘고 흰 목덜미를 더욱 눈에 띄게 한 것이 특징이다.

3) 한·일 문학작품에 나타난 기녀복식의 소재 및 문양의 차이점과 유사점을 살펴보면, 차이점으로『춘향전』에 나타난 기녀복식의 소재 및 문양으로는 속살이 비치는 모시, 값비싼 비단과 명주가 있다. 또한 풍속화에서 찾아보기 힘들었던, 그림과 수로 화려하게 장식된 의복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었다. 『호색일대남』의 경우 비단, 수자, 단자, 외국직물 등 당시 유행하였던 고가의 소재를 사용했다. 문양에는 기하학문양, 식물문양, 동물문양, 생활용품문양 등이 복합적으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조선시대 기녀복식에 나타난 문양과 달리 한 폭의 그림과 같은 기모노 특유의 화려하고 다양한 문양이 나타났다. 또한 기녀를 상징하는 문양이 존재했는데 이는 기녀뿐만 아니라 일행의 의복에도 문양을 사용하여 더욱 눈에 띄도록 하였다.

양국 문학작품에 나타난 소재 및 문양 표현의 유사점은 값비싼 소재의 의복을 착용한 점이다. 또한 의복을 문양으로 화려하게 장식했다. 값비싼 소재를 통해 화려하면서 도도한 분위기 뿐 아니라 경제적 부를 과시 할 수 있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양국의 기녀는 비슷한 시대적 상황에 놓여있었으며 당시대 여성복식의 유행을 주도했다. 이와 같이 한·일간 복식문화 양상은 많은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형태, 색채사용, 문양사용 등의 세부적인 면에서 많은 차이점이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조선시대 기녀는 여체의 굴곡을 강조한 하후상박의 실루엣을 연출한 반면, 에도시대 기녀는 기모노를 중첩한 넉넉한 일자형 실루엣을 연출했다. 또한, 에도시대 기녀의 간색의 사용과 다양한 문양의 표현은 일본의 문화적 특징에서 비롯된 것이라 생각된다.

【參考文獻】

- 강명관(2010)『조선풍속사 3-조선사람들 해원의 그림 밖으로 걸어나오다』푸른역사
 고바야시 다다시 지음, 이세경 옮김(2004)『우키요에의 美』영신사
 맹설(2013)「춘향전과 서상기의 인물 비교 연구」가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문순미(2007)「호색일대남(好色一代男)에 나타난 삽화에 대한 고찰」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설성경 역주(1995)『한국고전문학 전집 12 춘향전』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 송성욱 옮김(2004)『춘향전』민음사
- 유혜경(2002)「춘향전에 수록된 춘향의 외양묘사를 통해 본 조선 후기 이상적 여인상 연구 : 만화본, 경판본, 남원고사, 완판본의 비교를 중심으로」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강선(2005)「조선시대 후기 기생복식이 일반복식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풍속화를 중심으로」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능화 저·이규화 옮김(1992)『조선해어화사』동문각
- 이유진(2007)「호색일대남(好色一代男)에 나타난 여성상 연구」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하라 사이카쿠 지음, 손정섭·이주리에 옮김(1998)『호색일대남』현실과 미래
- 이행화·박옥련(2010)「근세 일본과 한국의 화장문화 비교」『일본근대학연구』제29집
- 정미혜(2003)「호색일대남에 나타난 유녀 고찰」『한일어문논집』Vol.7
- 조광국(2001)「기녀담, 기녀등장소설의 기녀 자의식 구현 양상에 관한 연구」서울대학교 대학원박사학위논문
- 채민정(2013)「호색일대남(好色一代男)에 나타난 여성상 고찰 : 동시대 조선조 소설구운몽(九雲夢)과의 비교를 통해서」단국대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井原西鶴 著 松田 修 校注(1992)『新潮日本古典集成 好色一代男』新潮社
- 北村哲郎 著·이자연 역(1999)『일본복식사』경춘사

논문투고일 : 2013년 09월 10일
 심사개시일 : 2013년 09월 20일
 1차 수정일 : 2013년 10월 09일
 2차 수정일 : 2013년 10월 16일
 게재확정일 : 2013년 10월 21일

〈要旨〉

근세 한·일 문학작품에 나타난 기녀복식의 조형적 표현 고찰
- 『춘향전』과 『호색일대담』을 중심으로 -

본 논문에서는 근세 한·일 문학에 나타난 기녀복식의 조형적 표현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형태 표현의 경우 양국의 유사점은 흰 피부, 단정한 머릿결, 고운 얼굴이 미의 기준이 되었다. 또한 가녀린 몸매를 은근한 노출을 함으로써 남성들을 유혹했다. 반면 『춘향전』에는 세류흥당의 가늘고 여린 상체와 크게 부풀린 하체의 하후상박(下厚上薄)의 실루엣으로 나타났다. 『호색일대담』의 경우, 적당히 풍성한 일자형 실루엣을 이루었는데 당시 남성이 미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매끈한 다리와 흰 목덜미의 관능적인 느낌에 대한 묘사가 나타난다. 양국 기녀복식의 색채표현의 유사점은 흰 피부와 대비가 되는 화려한 원색이나 원색대비의 의복을 착용한 것이다. 반면 『호색일대담』의 경우, 계절에 맞는 색채를 사용한 기녀의 옷맵시에 찬사를 보내는 주인공의 모습에서 계절에 어울리는 색채배색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양국 기녀복식의 소재 및 문양 표현의 유사점은 값비싼 소재와 문양으로 장식한 의복을 착용한 것이다. 이는 경제적인 능력에 대한 과시와 값비싼 소재의 의복을 다양한 문양으로 장식하여 세련되거나 화려한 분위기를 더하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반면, 차이점으로 나타나는 것은 우선 『춘향전』의 경우, 풍속화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아 확인할 수 없었던 문양의 사용이 나타난 점으로 소설을 통해 당시 기녀들의 의복에 문양을 그리거나 수놓았던 것을 알 수 있었다. 『호색일대담』의 경우, 기녀를 상징하는 문양의 사용이 차이점으로 나타난다. 이는 기녀일행을 멀리서 보아도 그 기녀임을 바로 알아볼 수 있도록 사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Contemplation on the formative expression of Ginyeo costume as expressed in early modern literature of Korea and Japan

- with a special emphasis on 『Chunhyangjeon』 and 『Koshoku ichidai otoko』 -

This study compared the formative expression of ginyeo costume as expressed in early modern literature of Korea and Japan. The study result suggested that both countries have same standard in expressing beauty, which were white skin, neat hair and pretty face. Both ginyeo and geisha tempted men by subtly exposing slender figure. On the other hand, there was difference in beautiful silhouette. In 『Chunhyangjeon』, a beautiful silhouette in Korea is described as slender upper body and exaggerated lower body. On the other hand, in 『Koshoku ichidai otoko』, a beautiful silhouette in Japan is described as properly rich straight-line silhouette, which reflects the aesthetic sense of Japanese male at the time. In addition, there is description in 『Koshoku ichidai otoko』 on sensual feeling raised by smooth leg and white neck. The similarity in color expression of costume worn by ginyeo and geisha is that they both wore luxurious prime colors so that prime colors would make contrast with white skin. In 『Koshoku ichidai otoko』, the protagonist gives compliment on the costume of a geisha with color matching with the season. It tells the importance of color scheme fitting to season in Japan. The similarity in material and pattern of costume worn by ginyeo and geisha is that they both wore costume decorated with pattern and made of expensive material. They wanted to show off their financial capability and enhance refined or luxurious taste by expensive material and patterns. On the other hand, there was difference in the pattern used. It is possible to know through 『Chunhyangjeon』 that Korean ginyeo drew or embroidered pattern on costume. Such use of pattern on costume is not found elsewhere including folk paintings. Meanwhile, it is possible to know through 『Koshoku ichidai otoko』 that Japanese geisha used unique geisha pattern on her costume so that people can know she is a geisha from far away.